

НЭП기 소련의 농민경제와 콘드라티에프의 친(親)농민적 경제발전계획론*

한 정 숙

1. 머 리 말

1920년대말부터 스탈린정권에 의해 감행된 소련 농업의 전면적 집단화정책은 국민경제의 성격변화라는 면에서 1917년 혁명보다도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새로운 정치권력의 담당자가 된 볼셰비키는 경제제도의 다중성(многукладность)을 특징으로 하는 구(舊)러시아의 사회경제구조를 사회주의 사회건설의 현실적 출발점으로 인정치 않을 수 없었던 데다 사회경제체제의 전환에 대해 처음부터 일치된 시기별 계획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이 국내외의 상황에 대응하여 각 단계마다 취하는 정책결정의 방향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 과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혁명 당시 및 그 후의 소비에트러시아의 농업 및 농촌사회의 현실이었다. 부분적으로 고도의 대규모화, 자본의 집중화가 이루어져 있던 공업부문의 경우 소유권의 교체(사유기업에서 국유기업으로)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생산의 사회주의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반해 농업부문은 분산된 소농경영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생산력수준 또한 대단히 뒤떨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봉건적 토지소유로부터 막 벗어난 농민대중은 토지의 사회화정책을 통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그들의 자그마한 땅때기에 완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 하에서 농업부문의 즉각적 사회주의화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소련·동구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로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농업인구가 차지하고 있던 압도적 비중¹⁾으로 인하여 농업경제의 이같은 성적은 곧 국민경제 전체의 성적을 대폭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도적 볼셰비키 사이에서는 소비에트경제의 소농민적 성격 때문에 사회주의의 최종적 건설에 이르기까지에는 일정한 기간의 이행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되게 되었다. 이 이행기는 노동자와 농민층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생산력을 높이고 자본축적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최종적 건설을 위한 분화적,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로 여겨지고 있었다.

전시공산주의의 부작용을 체험한 후 레닌이 주도한 신경계정책(НЭП)은 이같은 목표 아래서 추진된 것이었다. 레닌은 농업에 대한 국가통제를 완화하면서 개별농가에게 농산물의 시장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농업부문에서의 자본축적이 개별분산적 소농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행기적 정책으로서 시도하게 되었다. 이같은 목표에 상응하여 농민경제는 실제로 전시공산주의기간 중의 피해에서 벗어나 1925~26년(농업연도)에는 1차대전 발발이전의 생산력수준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동시에 НЭП가 이행기적 조치라는 것은 광범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이 기간 중에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본격적 건설방안 또한 당연히 논의되었는데, 여기에서는 НЭП 하 소련농업경제의 기본성격,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의 농업과 공업의 관계, 세계경제와 소련경제의 관련 및 이것이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논쟁이 진행되었다. НЭП가 허용한 활발한 지적 분위기에 참여한 것은 볼셰비키 이론가, 학자들만이 아니었다. 혁명 이후 정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상당수의 비볼셰비키 전문지식인들(멘셰비키, 인민주의자, 자유주의자 등) 또한 НЭП의 도입을 적극 환영하면서 학계, 정책입안부서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농업, 농민경제에 관한 논의에는 이른바 신(新) 인민주의자 계열의 전문가들이, 그리고 경제계획수립을 비롯한 일반경제정책에 관한 논의에는 구(舊)멘셰비키 계열의 지식인들이 주로 참여하였거나와 이같은 구분선은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여하튼 НЭП시기에 이용되었던 이같은 열린 지적 분위기가 바로 НЭП를 혁명 이후 소련역사에서 유일하게 주어졌던 “대안(代案)의 시기”로

1) 1차대전 직전에는 러시아의 전체인구 가운데 82.3%가 농촌주민이었고 또 그 대부분은 소농민이었다. 1920년대 전체를 통틀어 이같은 경향은 계속되었다(1929년 소련의 전체인구 중 농촌주민의 비율은 81.4%) V.P. Danilov, *Rural Russia under the Old Regime*, (Hutchinson, 1988) 38, 40면 참조.

평가하게 하는 한 중요한 근거를 이루게 된다.²⁾

그러나 1929년부터 본격화된 이른바 위로부터의 농업집단화정책은 HЭП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며 이 정식으로 인하여 소농경제라는 밭주 자체가 소련사회로부터 사라지게 된다. 스탈린체제의 기둥을 알리는 신호였던 농업집단화는 곧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의 초고속성장을 위해 농민층과 농업부문을 수탈하는 정책을 의미하였고, 이 정책은 그후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모델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HЭП의 지나치게 급격한 폐지와 일방적 공업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경제 자체뿐 아니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전반의 효과적 발전을 가로막는 축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케레스트로이카시대 소련의 역사적평가적업에서 이러한 20년터반의 이른바 “대전환”이 가장 최초로 비판의 대상이 된 쟁점들 중의 하나였던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³⁾ 케레스트로이카의 시작 이래 여러 갈래로 논의 혹은 시도되고 있는 농업 개혁론은 집단화정책의 산물인 국영농장 및 집단농장만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선호하지 않고 개인농, 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영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구의 창발성을 정려하여 생산성향상의 동기를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면에서 HЭП기의 정책논의들을 상기지 한다.

본 연구는 HЭП기에 경제정책임안분야에서 활동했던 비블세비키 전문가 지식인 가운데 대표적 인물인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의 경제발전계획론, 농업정책론을 당시의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검토하는 작업이다. 콘드라티예프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기변동론을 독특한 시각에서 다룬 “상기파동”(長期波動)론을 주장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원래 농민사회주의자들의 정당인 사회혁명당의 당원 출신으로 10월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임시정부의 마지막 연립내각에서 식량부차관을 역임하였으며 HЭП기에는 소련의 경제계획수립논의에 깊이 관여하면서 농민경제—농업경제의 진흥에 큰 관심을 쏟은 농업경제학자, 경제계획수립가이기도 하다. 그리한 그는 또한 스탈린과의 최종적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가장 먼저 재기정하게 된 활동가 가운데 하나이자, “부

2) “Круглый стол: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в 20-е годы”,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1988 캄츠.

3) М. Торбачев, “Октябрь” и перестройка: революц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коммунист, 1987 no. 17, 13~14면, “Коллективизация: Истоки, сущность, последствия”, История СССР, 1989 no. 3 등을 참조할 것.

농층의 옹호자”, “자본주의적 발전노선의 변호자”로 몰려 가장 철저히 매도당한 학자이기도 하다.⁴⁾ 그러나 스탈린식 경제정책, 농업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현재, 농민경제의 강화라는 의미에서의 농업육성을 바탕으로 공업발전을 이룰 것을 제안하고 있던 콘드라티예프의 경제계획본, 특히 협동조합을 통한 점진적 농업사회화를 최선의 방안으로 여기고 있던 그의 농업발전계획본은 보다 진지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스탈린에 대한 대안이(적어도 이론적인 수준에서라도) 존재하였던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역사연구자들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2. НЭП기 농민경제를 둘러싼 쟁점들

1921년 3월 레닌은 “식량과 원료의 공출의무를 현물세로 대체함에 관한 포고령”을 공포함으로써 신경제정책의 도입을 감행하였다. 식량의 강제징수제가 폐지되고 농산물의 시장판매가 허용되었으며, 이어 은행의 기능강화, 무분화화의 대환성보장 등 상품화폐관계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속속 취해지게 되었다. 공업 부문에서도 채산성의 원칙이 중시되기 시작하였다.⁵⁾ 이는 전시공산주의체제를 곧 실제로 공산주의적 이념이 구현된 체제로 파악하고 있던 당내 일부세력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НЭП 도입의 불가피성은 이미 러시아혁명자체의 계급적 성격에서부터 초래된 것이었다. 볼셰비키혁명은 노동자, 혁명적 병사층과 아울러 농민층을 그 성공의 사회적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광범한 농민층의 지지가 인민주의정당들로부터 볼셰비키에게로 신화하지 않았던들 볼셰비키의 정권장악 및 그 유지는 불가능했을 터였다. 그리고 혁명과 내란과정에서 농민층이 볼셰비키를 대체로 지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곧 볼셰비키야말로 “봉건적 토지소유의 철폐—농민(토지의 직접경작자)층 사이에서 모든 토지를 분배함”이라고 하는 그들의 오랜 숙원을 실현해주는 유일한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민층의 이상은 독립자영 농민으로서의 삶이었으며 볼셰비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던 농업의 사회화

4) 후술하겠지만 Кондратьевщина, (Москва, 1930)와 Против кондратьевщины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1931)라는 두 권의 논문집이 그에 대한 당시의 비판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헌들이다.

5) Richard Lorenz, *Sozialgeschichte der Sowjetunion* 1, 1917~1945 (Edition Subkamp, 1978) 124-125면.

—집단지 농업경영은 그들의 인식의 지평 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10월혁명 이후 볼셰비키정권이 공포한 토지 및 농업에 관한 일련의 보고령, 법률은 이같은 농민층의 요구를 대독 수용한 결과였다. 모든 토지는 사회화되었고 봉건적 예속에서 풀려난 농민들은 이른바 소비기준(가족수) 혹은 노동력기준(노동력있는 가족성원의 수)에 따라 촌락별·지방별로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받아 이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농민층은 자신들이 토지사유의 주체가 아님을 기꺼이 받아들여 생산물만은 당연히 경작자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전시공산주의 하에서 행해진 농산물의 강제정수는 농민층을 실질적으로 국가의 예속 하에 두는 것이었으므로 농민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НЭП은 어떤 면에서는 전시공산주의로 인해 중단되었던 농민혁명의 과제를 이어받아 이를 완수하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기도 하였다. 독립소생산자로서의 존재를 확보하게 된 НЭП기 농민들은 혁명이전 및 전시공산주의 시기에 비해 현저히 자유롭고 유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며 앞에서 말한 대로 농업생산력수준 또한 빠른 회복세를 보이게 되었다. 토지이용형태(공동체적 이용인가 호별이용인가 아니면 집단농장형태의 이용인가)의 선택권은 농민들 자신에게 주어졌으며 일시적이기는 하나 토지의 임대차와 농업노동자의 고용(제한된 범위 내에서의)까지 허용되기에 이르렀다.⁶⁾ 그러나 НЭП기의 농민정책은 이같은 유리한 제도조건들에 한입어 변명을 누리는 듯 보이면서도 국민경제전체의 사회주의적 지편성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문제점들 또한 던져주고 있었다.

우선 소비에트정권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산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농민층을 어떻게 계획경제의 통로 안으로 끌어들이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 시기 농민경영은 가족노동력에 바탕을 둔 가족경영이자 근로경영이면서 또한 시장관계에 편입되어 있었다. 즉 이 시기 농민들은 자가수요만을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생산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런 한에서는 이들이 시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었다. 시장은 곧 무(無)통제성(стихийность)⁷⁾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행위의 장(場)

6) 이들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다넬로프의 저서가 가장 훌륭한 참고문헌이 되리라 생각한다.

7) 의식성, 계획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말 스티хийность라는 노어단어는 한국어로 옮기기 꽤 까다로운 말 가운데 하나이다. 어떠한 현상이 의식적 계획과 지도에 따르지 않고 자연반경적으로 일어나고 진행됨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무통제성, 자

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만큼 계획과 시장이라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대한 쟁점이었다. 2천만 호가 넘는 농가, 1억이 넘는 농민을 동계받지 않는 시장의 영향력 아래 놓아준 채 계획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농작업부에 편입돼 있는 노동자계급과 사적 부문에 남아있는 농민층의 계급동맹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돼 있었다. 곧 이는 소비에트권력의 사회적 기반이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둘째, НЭП은 도시와 농촌 간의 직접적 교환을 대위치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등교환, 곧 농산품과 공산품의 불균등교환이라는 현상이었다.⁸⁾ 농산품의 가격수준이 공산품의 가격수준보다 낮을 뿐 아니라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른바 협상가격차(缺狀價格差) 현상이 НЭП기간 중 계속되었다.⁹⁾ 상대적으로 낮은 농산품가격수준은 곧 농민층의 구매력수준저하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공산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수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품귀현상을 빚고 있었다. 이른바 상품기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농민층이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일상소비재, 농기구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에 따라 농민층은 공산품시장에 대한 매력은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는 곧 그들이 공산품구매수단으로서의 현금을 획득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됨을 의미하였다. 사적 농산물시장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НЭП 후반기에 국가측이 곡물조달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는 다시 공업화발전계획의 착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짜르시대 당기의 급속한 공업화는 농산물수출과 외채를 그 주된 재원으로 한 것이었다. НЭП 도입이래 소비에트정권 또한 국내공업발전을 위해 외국자본을 활용하고자 시도하였었다. 그러나 지방층 자본가들이 소련내 투자를 회피하는 바깥에 이 투자유치책은 거의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했고 따라서 공업회복 위한 재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국내농업부문 밖에 없었다. 그런데 농민들의 농산물판매기피는 바로 농산물수출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국가가 내외무역을 독점하고 있어 사적상이 직접 외국과 교역할 수 없게 돼 있던 당시 상황 하에서는 일단 국내시장에 농산물이 출하되어야 수출 또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협상가격차—공산

—의 불균등교환 등의 역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이 글에서는 두 역어를 번갈아 사용하였다)

8) R. Lorenz, 앞의 책, 126-127면.

9) 이 협상가격차현상은 1924년 초에 농산물가격이 위상됨으로써 극복되는 듯이 보였으나 그 후 다시 악화되었다.

품부족—농산물조달의 어려움—공업화세원 확보의 난점이라는 현상들은 이렇듯 서로 얽혀 있는 것이었다.

세제, 소농경영의 내적 구조와 그 안정성 여부 자체 또한 HЭП기 전체를 통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었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당시 농민경영이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력수준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영규모의 영세성은 현상적으로만 볼 때는 경작자에게 법적으로 균등한 토지이용권이 보장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농촌인구의 증가 및 분가의 증가로 인해 농가수가 늘어남으로써 경영이 더욱 세분되는 데서 초래된 것이기는 하였다.¹⁰⁾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문제는 실상 경영면적의 절대수치와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 토지이용방식의 비효율성(김지의 분산, 삼포제), 낮은 토지생산성 및 노동생산성과 직결된 것이었다. 단위면적당 농산물수확고는 HЭП가 절정에 달한 때인 1925~26년에 가서 1913년의 수준을 회복하긴 했으나 그 후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¹¹⁾ 기술부족, 자본부족은 러시아소농경제가 겪고 있던 고질적 병폐들이었다. 토지소유제도의 근본적 변화, 이로 인한 수취관계의 본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농경영의 내부상대는 혁명 선에 미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농민경영이 시장관계에 편입돼 있음에 따른 농촌내 계급분화라고 하는 문제 또한 다시한 중요한 생점으로 등장하고 있었다.¹²⁾

불세비키 좌우파의 대립 및 스탄린파의 부상(浮上), 학계와 경제정책입안부서들에서 불붙은 계획농성 등의 배경에 깔려 있던 것은 HЭП기 소비에트농민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한편에서는 이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소농경영의 건실성, 안정성을 옹호하면서 현행농업구조의 존속필요성 혹은 그 점진적 개선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논자들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서는 사회주의적 대성업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논자들이 적자를 맹렬히 비판하고 있었다. 협상가격작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농민경영의 영세성 및 분산성, 낮은 생산성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주의

10) Danilov, 앞의 책, 240-246면 참조.

11) 위의 책 276면 참조. 이 도표에 따르면 1차대전 이전인 1913년의 수확고는 7억 6,500만 켈트니였는데 1926년에 7억 6,830만 켈트니에 달했던 수확고는 1927년에는 7억 2,300만 켈트니를 1929년에는 7억 1,740만 켈트니를 기록하게 된다. 단위면적당 수확고도 이에 상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12) 이 문제는 농민층분화와 농업사회화에 대한 콘드라디예프의 입장을 다른 편에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적 사회경제에서 농업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이야말로 소련 국민경제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터였다.

3. 콘드라티예프의 친(親)농민적 경제발전계획론

(1) 콘드라티예프의 경기변동론

1892년 농민가정에서 태어난 콘드라티예프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등학교, 농업원예학교 등을 거쳐 1911년 페테르부르크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으며 대학시절을 통해 경제학, 통제한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게 된다.¹³⁾ 이 시기 그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던 투간 바라노프스키로부터 각별한 학문적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아울러 그는 아주 이른 청소년시기부터 농업 및 농민문제에도 학문적, 현실적으로 깊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가 1905년 혁명의 물결 속에서 불과 13세의 나이로 농민사회주의정당인 <사회혁명당>에 가입하였던 것은 그의 지적, 정치적 관심의 방향을 집작케 해 주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1915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곧이어 강단, 챔스트보연맹 등에서 학자, 실무가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며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자 인민주의, 자유주의적 성향의 농업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업연맹>(Аграрная Лига)의 일원으로도 참가하여 <농업문제>라는 소책자를 간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농민, 농업문제의 해결에 진력하게 된다. 이처럼 그의 학문적, 정치적 활동이 인민주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까닭에 10월혁명 이후, 특히 진시공산주의기간 동안의 볼셰비키의 정책에 대한 그의 입장은 우호적일 수 없었다. 때문에 그는 다른 인민주의자들과 더불어 볼셰비키정권을 신랄히 비판하는 논문집의 발간에 참가, 농업문제를 다룬 <굶주림으로의 길>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¹⁴⁾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볼셰비키정권에 조직적으로 대항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충성스러운 반대파로서 대학과 연구소에서의 집중적인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13) 콘드라티예프의 생애에 대해서는 Н. Макашева, "Н.Д. Кондратьев—краткий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88, no. 9)와 N. Jasny, Soviet Economists of the Twenties. (Cambridge, 1972) 158-164면 등을 참조.

14) Н. Кондратьев, "По пути к голоду", Большевики у власти (Москва, 1918) 246-261면. 그는 이 글에서 진시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식량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일반인우주의의 회복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글, 261면.

1920년에는 국민경제경기연구소가 설립되어 콘드라티에프가 이를 이끌게 된다. 이 연구소는 20년대 그의 활동에서 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콘드라티에프는 이 연구소에서 자본주의의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이 분야에 걸친 많은 단행본, 논문들을 집필하는 한편 기관지인 <경기연구소 경제회보>의 발간을 주도하고 또한 많은 통계자료집을 편찬하게 된다. 콘드라티에프에게 있어서 자본주의경기변동에 관한 연구는 물론 그 자체로서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그 못지 않게 강력한 연구동기를 이루었던 것은 신장소비에트국가의 국민경제발전전략 수립은 세계시장경제의 동향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의 확신이었다. 1926년에 발표된 <성기의 대주기>는 그의 이름을 경제학사에 남게 하는 계기가 되었거니와 이 논문의 핵심적 명제는 이미 1921년에 발표된 단행본 <전시(戰時) 및 전후(戰後)의 세계경제와 그 경기변동> 및 그 외의 여러 논문들에서 이미 개략적으로 서시되어 있었다. 자본주의의 경기변동에 관한 콘드라티에프의 이론을 아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가 경기변동을 특징으로 하며, 파상(波狀)으로 진행되는 이 경기변동주기에는 위글라주기로 먼저 널리 알려져 있는 7~11년에 걸친 주기만이 아니라 약 50년(54년)에 걸치는 대주기(장기파동) 또한 포함된다. 이 둘 경기주기는 각기 상승, 위기 및 하강국면을 가진다. 상승기에는 물가, 상품의 가격, 유가증권의 가격, 임금이 인상되고 대외교역이 증대하고 소비자들의 상품구매력이 향상되며 농업경기가 상승한다. 하강기에는 반대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같은 주기적 변동은 전제제적 차원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세계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된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구체적 양상은 물론 다를 수 있다.¹⁵⁾

② 경기주기의 교체는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이미 축적된 자본 및 축적되고 있는 자본의 근본적 재분배 과정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것이며 산업의 수축적 개

15) Nikolai Kondratieff, *The Long Wave Cycle*, tr. by Guy Daniels (Richardson & Snyder, 1984) 27-29면. 콘드라티에프는 이들 중·장기 파동외에 3,5년에 걸치는 최단기 파동 또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책, 29면.

16) N.D. Kondratieff, "Die langen Wellen der Konjunktur", *Die langen Wellen der Konjunktur. Beiträge zur Marxistischen Konjunktur- und Krisentheorie*(1972) 150면. 이 독일어판 논문은 콘드라티에프가 1926년에 발표한 Большие циклы конъюнктуры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주 15)에서 소개한 문헌은 이 노이원 등의 열역본이다.

력과 기술혁명 및 생산력의 변화를 동반한다.¹⁷⁾

③ 대주기의 변화가 기술변화, 전쟁과 혁명, 새로운 국가의 세계시장편입, 금(金)채굴량의 변동 등 우연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예를 들어 트로츠키처럼) 이는 그렇지 않다. 우연적, 외부적으로 보이는 위의 요인들도 실은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필요에 의해 촉진된 것이다. 곧 자본주의경제의 경기변동의 대주기는 자본주의경제에 내재하는 원인에 따라 발생한다.¹⁸⁾

④ 1920년대초(1920~21년)의 위기를 근거로 하여 세계자본주의가 전면적 몰락기에 들어섰다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1920년대초에 시작된 위기는 역사상의 다른 자본주의적 위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과잉생산의 위기에 해당한다.¹⁹⁾ 대주기의 하락국면은 24~25년에 걸치므로 1920년대를 경과하는 동안 소주기 내에서의 부분적 상승은 목격될 수 있을 것이나 대주기의 과정으로서의 하락국면 자체가 이 기간 중 극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상대적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강력하고 기업가적인 정신 속에 내포된 긍정적인 면에 대한 대가로 사회가 치르는 불가피한 고통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된다. 세계자본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주기상의 하락국면을 겪은 다음 기술혁신을 수반하는 새로운 대주기의 상승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다.²⁰⁾

콘드라티예프는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되 마르크스의 방법론이 지극히 유용하며 학문적으로 생산적이라 여기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하였다.²¹⁾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경기변동론을 발전시키면서 결국 1920년대 말의 세계경제의 대공황을 간접적으로 예언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경기변동의 대주기는 소련경제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무엇보다도 그는 당시의 자본주의의 위기가 최종적 몰락을 알리는 위기는 아니라

17) Н.Д. Кондратьев, Мировой хлебный рынок и перспективы нашего хлебного экспорта (Москва, 1923) 10년.

18) N.D. Kondratieff, "Die langen Wellen der Konjunktur", 위의 논문 153-159면.

19) Н.Д. Кондратьев, Мировое хозяйство и его конъюнктуры во время и после войны (Вологда, 1922) 209년.

20) 위의 책, 254년.

21) Nikolai Kondratieff, "Strittige Fragen der Weltwirtschaft und der Krise (Antwort an unsere Kritiker)", V. Hedtke, Stalin oder Kondratieff. Endspiel oder Innovation? (Berlin, 1990) 159년.

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발전잠재력, 생존능력을 과소평가하여 혁명적 모험주의로 빠져드는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20년대초의 국제 노동운동은 물질적 전제조건은 무시한 채 혁명적 의지만을 전능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에 휩쓸려들어 있었으며²²⁾ 일부 볼셰비키 또한 이같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콘드라티예프는 자본주의를 경제발전의 한 특정한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국민경제전체의 역동적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다.²³⁾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나게 될 지에 대해서는 그로서는 알 수 없었다. 1920년대가 그 시점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세계경제가 존속하는 한 그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다시 말해 그는 소련이 사회주의장권을 가지고는 있되 세계시장경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는 소련의 농업화(이는 당연한 목표이다)는 농산물의 수출에 의한 재원확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계경제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세계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그에 가장 적절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정책이었다. 예컨대 세계농산물시장의 장기동향을 분석할 때 소련의 곡물, 버터, 계란, 목재 등은 수출전망이 매우 밝은 품목들이라고 판단되고 있었다.²⁴⁾

그러나 콘드라티예프가 마르크스주의자—볼셰비키가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1920년대의 위기가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의 명제는 그가 일찍부터 일부 볼셰비키 사이에서 “자본주의의 옹호자”로 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의 <진서 및 진후의 세계경제와 그 경기변동>이 출판된 후 그에 특히 가장 적렬한 비판을 가한 것은 오신스키였다.²⁵⁾ 오신스키의 평가에 따르면 콘드라티예프는 자본주의가 복합적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본주의를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인물이

22) V. Hedtke, 위와 책, 91-101면 참조.

23) N. Kondratieff, “Strittige Fragen der Weltwirtschaft und der Krise”, 138, 140면.

24) Л. Пняшева, “Тяжелая колесница истории просхала по нашему поколению...”, Дружба народов, 1988 no. 7, 188면 참조. 피야세바의 이 같은 콘드라티예프에 관한 수상인내, 본문에서 언급한 유망한 수출품목에 관한 내용은 콘드라티예프의 미출판 보고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25) Н. Осинский, “Мировое хозяйство в оценке наших экономистов”, Красная новь, 1923 no. 2.

었다.²⁶⁾ 이에 맞서 콘드라티예프는 트로츠키 또한 자본주의의 최종적 몰락여부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과 다를 바 없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말하면서 같은 이야기라도 당원학자, 당이론가가 하면 비판받지 않고 비블셰비키가 하면 비판받아야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워하였다.²⁷⁾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당시 일부 볼셰비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가”보다는 “누가 말하는가”가 문제되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에 따라 혹은 특정한 정치적 집단에의 소속여부에 따라 학문적 작업을 평가하는 경향은 <진실 및 전후의 세계경제 및 그 경기침동> 출판 당시에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반혁명세력의 도전으로 인한 내란의 참화를 갖 빠져나온 소비에트사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일어기는 하였다. 이쨌든 콘드라티예프는 20년대초부터 이미 쏟아진 그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경기의 장기파동에 관한 연구 및 세계시장의 동향분석이라는 작업을 계속해 갔다. 그것은 일단 그같은 작업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 차원으로까지 올라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НЭП가 미래를 가진 정책이라는 데 대한 확신과도 통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2) 콘드라티예프의 경제발전계획론

НЭП의 도입과 거의 같은 시기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실현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야심찬 전기화계획(Гоэроплан)은 1920년에 이미 9차 볼셰비키 당대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1921년 2월에는 국가계획위원회(Госплан, 아래에서는 고스플란으로 칭한다)가 설치되어 국민경제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계획경제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콘드라티예프는 농업경제학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 1923년부터 러시아공화국(РСФСР) 농업인민위원회(Наркомзем) 산하의 농업계획위원회(Земплан, 아래에서는 zemplan이라 칭한다)에서 농업(및 임업)부분의 발전계획안의 작성을 주도하는 한편 국민경제전체의 발전계획안작성을 위한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비록 고스플란이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zemplan의 작업참가자들은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별도로 작업을 집

26) 위의 논문, 217면.

27) Kondratieff, "Strittige Fragen der Weltwirtschaft und der Krise", 169-172면.

행하였다. 1924년에는 콘드라티예프가 인민사회주의당 출신의 농업경제학자인 오기노프스키와 공동으로 편찬한 <소련 농업발전전망>이 심문란작업총서 제 1권으로 출판되었고 같은 해 7월에는 이를 수정·보완한 <농업 및 임업발전전망 계획의 기본>이 역시 발간되었다. 1925년 7월에는 고스플란 전체회의에서 켈플란을 대표할 콘드라티예프가 바로 이 7월판 계획안을 요약발표하였다.²⁸⁾ 켈플란측의 공식계획안이었던 이 <농업 및 임업발전전망계획의 기본>은 고스플란측의 5개년계획안에 대비되어 이후 <콘드라티예프의 5개년계획안>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²⁹⁾ 콘드라티예프의 구상은 어떤 점에서 고스플란측의 안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을까?

정치 소련의 경제계획회의에서는 방법론과 관련하여 크게 두 조류가 내립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의 사회공약적 측면, 곧 당의 정책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고도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인간의 의식적 노력에 의해 이를 달성할 것을 역설하는 논자들(이른바 목적론자들)이 대표하고 있었고 다른 부류의 논자들은 경제현상에는 인간의 의지, 정책만으로 좌우할 수 없는 그 자체의 발전논리가 있으므로 경제계획작성작업에서는 어디까지나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의식적 노력을 가미해야 된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었다(이른바 발생론자들).³⁰⁾ 볼셰비키 당내에서도 계획방법론을 둘러싼 견해는 크게 양분되었으니 대체로 좌파는 첫번째 조류를 대표하고 있었고 우파는 후자에 기울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부하린같은 인물은 초기에는 프레오브라젠스키와 함께 첫번째 조류를 대표하다가 정치적 입장이 우파로 전회함과 더불어 발생론적 방법론을 옹호하게 된 경우였다. 콘드라티예프는 계획방법론논쟁에서 초지일관 “사회공학으로서의 경제계획론”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가 볼셰비키당원 경제학자인 스트루밀린을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1927년에 작성한 <국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한 비판적 소고>는 계획방법론에 관한 콘드라티예프의 대표적

28) Н.Д. Кондратьев, “Основы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у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1925 no. 7, 186-214면.

29) Н. Макашева, 위의 글, 61면.

30) “발생론적 방법”과 “목적론적 방법”이라는 용어법은 에세비키출신 경제학자였던 타자르프에 의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고 한다. Кондратьев, “План и предвидение”, Пу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1927. no. 2, 8면 각주 참조. 미국학자 스펄버는 이 두 조류를 대표하는 인물들에 대해 determinists와 voluntarists이라는 표현법을 가장 사용하고 있다. N. Spulber, *Soviet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Bloomington, 1964) 29면.

논분들 가운데 하나이다.³¹⁾ 고스플린의 5개년계획안작성(1926/27년에서 1930/31년까지에 대한)은 주도한 인물이자 이 계획안의 제안설명자였던 스트루민린은 계획을 간축에, 계획작성자를 건축가에 비유하면서 건축가에 따라 건물이 달라지듯 계획에 따라 경제가 달라진다고 하는 표현으로써 의식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³²⁾ 이는 구체적으로는 가능한 한 급속하게 산업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논의로 집약되었다. 이에 따라 고스플린측의 계획안에서는 공업에 최우선순위가 주어져 5개년에 걸친 각 부문별 성장목표안(案)에서 농업부문의 성장률은 공업부문의 그것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³³⁾ 즉 스트루민린은 공업발전의 속도는 바로 농업자체의 성장속도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여기고 농업발전계획은 공업발전계획에 종속된 위치에서 정해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측 투자액 또한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액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고스플린측 5개년 계획안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5개년간의 투자액은 총투자액의 6.8%로 책정되었다)³⁴⁾ 농업의 생산성이 공업생산성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농업에의 투자는 그만큼 덜 효과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콘드라티예프는 이같은 고스플린측 입장에 대해, 저요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축기술자화는 달리 국민경제건설계획에서는 건축재료지체를 검토해야 된다는 탈로씩 반론을 가하였다.³⁵⁾ 고스플린측이 건축재료, 한 이데 주어져 있거나 앞으로 틀림없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축적분에 대한 고려없이 급속한 농업화안을 작성하여 제시했다는 것은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국민의 복지수준을 낮추고 국민경제자체를 위기로 몰고 가는 위험한 계획이었다. 콘드라티예프는 압박한 시기의 국민경제발전의 기본문제는 단순한 수치상의 성장목표

31) Н.Д. Кондратьев, "Критические замечки о плане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лановое хозяйство*, 1927, no. 4.

32) S.G. Strumilin, "Perspective Guide Lines For 1926/27~1930/31" *Foundations of Soviet Strategy*. Selected Soviet Essays, 1924~1930 ed. by Nicolas Spulber (Bloomington, 1964) 426-427면.

33) 고스플린의 계획안에 따르면 1926/27년에서 1931/32년에 이르는 5년동안 공업부문의 총생산 증가율은 69.3%로, 농업부문의 그것은 24.1%로 책정되어 있었으며 5년동계급의 복지수준증상율은 50%로, 농민총사수인의 그것은 30%로 책정되어 있었다. Кондратьев, "Критические замечки о плане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7면.

34) 위의 논문, 8면.

35) 위의 논문, 4-5면.

를 제시하는 일이 아니라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성장계획을 짜고 또 이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³⁶⁾ 국민경제전체에 걸쳐 축적과 투자, 수출입프로그램을 보장해 주고 공업화를 가능케 하며 농업과잉인구분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이야말로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계획안이었다.³⁷⁾

그렇다면 콘드라티예프 자신의 농업발전계획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던가? 그는 농업부문에 관한 한 계획작성의 두 길 가운데 목적론적 방법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되 발생론적 방법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였다.³⁸⁾ 러시아 농업은 개별분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획일적인 계획의 적용이 어렵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발전계획은 과거의 농업발전 경향을 추적하여 자연발생적(стихийный) 경향의 특수성을 밝힌 후 무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인간의 합목적적 노력이라는 요소를 이에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터였다. 이같은 관점에서 콘드라티예프는 혁명이전부터 НЭП에 이르기까지의 농업발전경향을 우선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구(舊)러시아 및 소비에트러시아의 농업은 다음과 같은 발전경향을 경험하였다.³⁹⁾

① 전쟁 전 :

㉠ 농업생산의 양적 증가, 생산성의 향상

㉡ 생산물가격의 상승, 축산의 증가, 기술작물재배의 증가, 농산물상품화의 증대, 대지주경영이 농민경영에 밀려남

㉢ 농민경제의 성장과 함께 농민충분화도 진행

㉣ 노동집약적 농경이 지배적이어서 자본투자는 미미함(이는 불리한 조세정책 때문임)

② 혁명 직후 : 농업사정에 이중의 변화가 초래됨

㉠ 봉건적 토지소유제도의 철폐로 농업발전을 가로막던 요소들(제도적 요인들)이 제거됨

㉡ 그런 한편으로는 농업의 일시적 쇠퇴현상도 목격됨(농업경영의 영세화, 하향평준화, 파종면적의 감소, 축산 및 시장성높은 작물재배의 감소, 농

36) 위의 논문, 1면.

37) 위의 논문, 27면.

38) Кондратьев, "Основы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187-188면.

39) 위의 글, 188-192면.

산품의 상품성 감소)

③ НЭП시기 : 농업부흥이 시작됨. 그러나 이 시기의 농업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농업노동력에 비해 자본투자가 낮은 현상은 러시아농업의 특징이거니와 이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과잉인구사정 또한 악화되었음.

이같은 발전경향을 분석한 후 콘드라티예프는 농업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생산력발전이라 규정하였다.⁴⁰⁾ 스트루빌린은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오히려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콘드라티예프에 따르면 이는 공업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다. 왜냐하면 농업은 공업원료의 공급원이며 농촌은 공산품의 판매시장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콘드라티예프에 따르면 당시 소련의 사정 하에서는 농업의 생산력증대는 공업부문의 자본축적, 생산수단공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였다. 즉 공업화는 농업생산을 증대하여 농산물을 수확하고 공업생산도구, 생산수단을 수입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레닌이 1921년에 (НЭП)를 도입하면서 제시한 길이라고 콘드라티예프는 파악하고 있었다.⁴¹⁾ 국민경제전체의 발전을 위한 자본축적기반의 확보는 우선 농업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농민경영의 상품성증대, 사회적 생산에의 편입강화가 바로 그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경제정책, 농업경제정책면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일반경제정책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문제된다.

첫째,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농산물의 가격수준, 농·공산품의 가격관계이다.⁴²⁾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 농산품의 상품성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도 다름아닌 농·공산품간의 협상가격차 및 이로 인해 초래되는 농민층의 낮은 구매력에 있었다. 농산품의 가격수준이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은 공업을 위해서도 농업을 위해서도 모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농산품의 현금구매력이 낮을수록 농민층은 농산품의 시장판매를 꺼리게 되고 현물로서 축적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장성이 높은 기술작물의 재배감소를 초래하고 저장성이 보다 높은 곡물류재배의 상대적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곡물류의 재배규모에도 적정한계가 있으므로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전체농산물재배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40) 위의 글, 192면.

41) 위의 글, 193면.

42) 위의 글, 201-202면.

게 된다.⁴³⁾ 그런 한편, 농산품의 가격수준과 공산품시장의 용량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일부 논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산물가격수준은 공산품의 시장용량 자체에도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⁴⁴⁾ 따라서 콘드라티예프는 농촌인구의 높은 구매력을 보장해 주는 것, 곧 농·공산품의 가격을 내리되 공산품의 가격을 보다 내폭 내리는 것이야말로 협상가격차 공산품기근을 물리칠 인쇄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취하여야 될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콘드라티예프는 농산물수출의 최대한 확대를 역설하는 한편, 농업제품 전반, 특히 농기계, 농업생산수단의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조치의 실시에는 반대하였다.⁴⁵⁾ 아울러 그는 국가의 대외무역특권권을 해지할 것도 요구하였다. 또한 농산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격을 올리는 요인인 반잡한 동상기구 등을 과감히 합리화하고 수출농산품의 운송비를 정간해 주며 저장창고를 늘려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콘드라티예프는 제안하고 있었다.⁴⁶⁾

셋째,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농업의 선위화 또한 농업의 육적기반확보를 위해 취해져야 될 중요한 조치였다. 또한 농촌에 유리한 신용정책 및 조세정책도 물론 필요하다고 여겨졌다.⁴⁷⁾

이같은 일반경제정책상의 조치들과 함께, 농업정책 자체로는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치, 각 지역별로 가장 적합한 경영형태의 장려, 생산수단의 조직화, 기술개발, 관계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콘드라티예프는 판단하고 있었다.⁴⁸⁾

이같은 제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조블란의 5개년계획안과 견주어 볼 때 콘

43) Н. Кондратьев, "Натуральное накопление в крестьян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развитие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финансы и народное хозяйство, 1926, no. 7, 6-7쪽.

44) П.Д. Кондратьев, "К вопросу о влиянии уровня цен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и его изменения на общую емкость рынка товаров индустриа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хозяйство, 1924, no. 1, Кондратьев, "Емкость деревенского рынка фабрикатов в 1922~24 г."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хозяйство, 1924, no. 3 등 참조.

45) Кондратьев, "Основы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202쪽.

46) 같은 곳 및 Основы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Москва, 1924)(단행본) 51면 등.

47) Кондратьев "Основы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보코판) 203-204면.

48) 위의 글 204-207면.

콘드라티예프의 구상은 국가가 농업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농업과 공업이 동시에 같은 속도로 발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공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적극 인정하고 있었다.⁴⁹⁾ 뿐만 아니라 그는 농업의 발전속도 자체를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농업 및 임업발전방계획의 기본>에서, 발생론적 성격에 입각해 볼 때 5년 안에 농업을 원진히 제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언명하면서 이 계획안은 국가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혁명적 작용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⁵⁰⁾ 이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본투자와 관련해서도, 토지이용형태 및 경영형태의 개편성과 관련해서도 다 적용되는 말이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스플란의 계획안이 장기간에 걸쳐 인도별로 각 부분의 정정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음에 반해 콘드라티예프는 계획안작성에서 그러한 수치의 제시는 될 수 있는 대로 삼가려 하였다.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수치화하여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⁵¹⁾ 이는 자본주의경제체제 하에서와 같은 무통제성에 남북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을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콘드라티예프는 농업부문에 관한 한 농민경제의 자발성,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의식적 활동을 통하여 이를 계획경제의 테두리 내로 이끌어들이 필요성이 있음을 분명 인정하고 있었다.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계획수립—실천의 중요성이야 말할 나위도 없었다. 다만 이 때의 계획이라는 것은 인방적 명령이 아니라 일종의 방향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점이 계획인물론자들과의 차이였던 것이다.⁵²⁾ 그는 달성해야 될 지상목표로서의 연간성장률을 일일이 수치로 제시하는 대신 각 부분(경작, 축산, 임업)별, 각 지역별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고찰, 분석하면서 가장 유망한 물품의 개발을 상려하고 가장 절실한 작업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콘드라티예프 자신이 수백대 온 과거농업발전의 동향 및 세계농산물시장의 동향분석을 통한 미래의 경

49) Кондратьев, “Перспектив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у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1926, no. 3, 124면.

50) Кондратьев, “Основы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모고문) 188면.

51) Кондратьев, “План и предвидение”, 30-35면. 다만 단기적 시점계획의 경우에는 구체적 수치의 제시도 유용하다고 콘드라티예프 또한 인정하고 있었다. 위의 글 35면.

52) 위의 글, 33면.

향의 “예견”이란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⁵³⁾

자발성과 지도(指導)의 조화, 생산성 향상, 자본축적의 기반 마련—이러한 것이 콘드라티예프가 국민경제발전계획,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발전계획의 기본 노선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같은 노선은 사실 HЭП도입 이후 대략 1927년까지의 정책의 기초를 잘 명문화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던 콘드라티예프의 노선이 벽에 부딪치게 되는 것은 볼셰비키 당의 정책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시점부터이다.

(3) 농민층분화와 농업사회화방안에 대한 콘드라티예프의 입장

HЭП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소농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력의 회복을 꾀하는 시기인 동시에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기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원칙은 서로 충돌하는 듯이 보일 때도 적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심각한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곤 하였다. 농업생산력이 1차대전발발이전의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부터, 볼셰비키정부가 취하고 있던 개별경영에 대한 양보조치와 관련하여 귀중한 관심을 끌었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농민층의 분화문제였다.

10월혁명 이후 취해진 토지구유화정책으로 인하여 토지의 매매, 저당, 양도, 상속 등 토지의 자유거래가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토지라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통한 경영의 확대는 저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토지이외의 생산수단, 예컨대 농기구, 건물, 농산물가공시설, 현금, 가축, 종자 등등은 여전히 개별농가의 수중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경제라는 조건 하에서 경영능력이 있는 농민들과 그렇지 못한 농민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의 분화가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더욱이 토지의 임대차, 농업인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조치까지 취해졌기 때문에 이는 이른바 부농층의 성장을 다시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언급한대로 경영의 분산화, 영세화경향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농민층분화와 같은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시장은 곧 자본주의적 분화경향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시장의 존재 하에서도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볼셰비키 당내에서 농민층분화를 둘러싼 좌우파의 대립이 심화되었던 데 이

53) 예견과 지시의 조화 문제에 관해서는 위의 글, 11면 참조.

이 1927년에는 농업경제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주제로 한 대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차야노프 등 가족경영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농민층의 계급적 분화현상을 과잉하고 생물학적 요인(가족구성의 변화)에 의한 소농경영의 순환적 분화현상만을 인정할 때 함께 크리프만을 전두로 하는 일군의 마르크스주의 농업경제학자들은 농민층 내에서의 분화를 자본주의적 계급분화로 파악하고 무농층에 대한 규제필요성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었다.⁵⁴⁾

콘드라디에프는 그가 아직 사회혁명당 당원이던 1917년에 집필한 <농업문제>에서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업사회주의자로서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⁵⁵⁾ 그는 사회혁명당의 강령이었던 토지사회화를 토지문제해결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노동력기준 혹은 소비기준에 따른 균등한 토지분배를 요구하였다.⁵⁶⁾ 즉 그는 모든 토지는 전인민의 자산이 되어야 하며(국가의 토지소유권도 인정되어서는 안된 듯했다) 토지에 대한 이용권은 토작에서의 노동과 결부되어서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아가, 농기별 노동력기준이나 소비기준을 상회하는 토지는 개별농가에 허용되지 않고 공공자치기구의 관할 아래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56-a)} 농업노동자의 고용은 따라서 허용될 수 없게 되었다.⁵⁷⁾ 왜냐하면 임노동의 고용은 곧 자본주의적 성립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혁명의 열기 속에서 콘드라디에프는 대단히 엄격한 반(反)자본주의적, 평등주의적 근로농민경영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소적자에서는 분화분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의에서 전술된 원칙들만을 고려해 보더라도 농민층의 계급적 분화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자명하였다.

그러나 НЭП기를 거치는 동안 생산력의 발전을 농업발전계획의 으뜸가는 목표로 설정하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콘드라디에프의 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가 1925년 유럽·미국여행에서 돌아온 후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54) Susan Gross Solomon, *The Soviet Agrarian Debate*. (Westview Press, 1977) 115-125면 참조.

55) Н.Д. Кондратьев, *Аграрный Вопрос: О земле и земельных порядках* (Москва, 1917).

56) 그러나 그는 이 두 기준 중에서도 새로운 토지분배의 기준을 이루는 것은 소비기준이어야 하리라 생각하였다. 위의 책, 35면.

56-a) 위의 책, 36면.

57) 다만 국가, 협스드보, 도시, 협동조합이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나 식구는 광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한해서 임노동의 고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리라고 콘드라디에프는 생각하였다. 위의 책, 39면.

는 미국형 파머(farmer)의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설정되고 있었다.⁵⁸⁾ 나아가 그는 1927년 농민총분화논쟁에 참여하면서 〈농촌분화문제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자신의 입장을 한층 명백히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혁명 전과 혁명 후의 농촌에서의 분화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역적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혁명 전에는 전반적으로 명백한 농민층의 양극 분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시장화폐경제의 발전이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58-a)} 그런데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 혁명 전의 이같은 분화는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소득 및 노동생산성이 높으며 축적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상품생산의 성격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의미에서는 이 분화과정은 자본주의적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이기는 하였으나 생산력발진을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주민들 특히 하층민에게도 이로운 과정이었으며, 가부장제적 농업상태에 비해 역사적으로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며 진보적인 과정이었다.⁵⁹⁾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이에 반해 혁명 후 НЭП기의 농촌에서의 분화과정은 혁명전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면서 또한 훨씬 덜 현저하였다. 우선 농촌의 과잉양구가 경영의 영세화를 초래하면서 분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특히 중부흑토대 지방에서), 국가의 정책 또한 짜르정부의 분화강력책과는 정반대로 분화를 지지하여 최상층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⁰⁾ 물론 이 정책 덕분에 최하층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주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또한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⁶¹⁾ 그러나 상층일수록(다시 말해 경영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고 축적기회가 높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경영의 영세화, 하향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당시 소련농촌의 현실은 국민경제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하였다.⁶²⁾ НЭП기 소비에트권력의 정치적 기반은 노동자와 농민, 특히 중농층의 계급동맹(смычка)으로 파악되고 있었

58) Л. Пияшева, "Тяжелая колесница истории проехала по нашему поколению...", 187면 참조.

58-a) Н.Д. Кондратьев, "К вопросу о дифференциации деревни", Пу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1927, no. 5, 126, 129면.

59) 위의 글, 131면.

60) 위의 글, 135면.

61) 위의 글, 133, 135면.

62) 위의 글, 138면.

63) Основные Начала Землепользования и землеустройств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докладов и материалов (Москва, 1927) 180면.

다. 그런데 콘드라티예프에 따르면 콜라키와 중농이라는 개념은 어니까지나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⁶⁴⁾ 그 구분은 정책에 의해 작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는 예컨대 미국 농촌에서는 콜라키, 중농, 밭농 등의 개념이 거의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고 있었다. 콜라키라는 개념 자체가 인위적으로 도입된 것인 한 토지 및 농업관계 입법이 “현존하는 혹은 가상(假想)으로만 존재하는 콜라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향만이 경영능력이 가장 뛰어난 농민층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었다.⁶⁵⁾ 1927년에 토지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에서 그는 경영의 영세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토질을 개량했다가 농업경영을 포기하고 떠나는 농민들에 대해 토질개량에 투입된 비용만큼을 보상해 줄 것, 근로경영농가에 대해 토지의 임대차, 위노동의 고용 등을 방안으로 명문화해서 보상해 줄 것 등을 요청하게 된다.⁶⁶⁾

이같은 논의를 놓고 볼 때 오랜 기간 사회혁명당원이었던 콘드라티예프가 스탈린체적 농업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전환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사회주의자 콘드라티예프가 콜라키자본주의의 찬미자로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1917년 〈농업문제〉 집필당시에도 이미 콘드라티예프는 소경영보다 대경영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경영은 소경영에 비해 단위면적당 관리비용, 농기구, 역축소요량이 훨씬 적게 들고 분업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학적 영농방법의 이용, 최신 농업용생산 도구 도입에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⁶⁷⁾ 채르니셰프스키 이래 경영의 대규모화라는 구상이 인민주의 내의 한 강력한 조류를 형성해 왔음을 생각한 때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대경영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자본주의적 대경영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경영적 대경영이다.⁶⁸⁾ 농업사회주의자 콘드라티예프가 택할 수 있는 대경영은 어떤 것인가? 달할 나위도 없이 근로경영적 대경영, 곧 소근로경영들의 연합체로서의 대경영이다. 그것은 협동조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에 편입된 농민경영이 가상 유리한 조건으로 생산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⁶⁹⁾ 국가의 경제정책을 모란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

64) 같은 곳.

65) 위의 책, 181, 182면.

66) Кондратьев, Аграрный Вопрос, 49면.

67) 위의 책, 48면.

68) Н.Д. Кондратьев, Производство и сбыт масляных семян (Москва, 1919)

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즉 국가의 경제정책은 일상적 경제생활로부터 떨어진 추상적인 것, 단순히 공법적인 성격의 것으로 그칠 위험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주민들 자신의 자율적 연합체인 협동조합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경영대중의 욕구,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실현해 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⁶⁹⁾ 이같은 협동조합의 최고형태는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 생산협동조합이 될 터였다.⁷⁰⁾ 생산협동조합, 곧 근로농민적 협동농장은 농업사회화의 실현방안이기도 하였다. 콘드라티예프가 이를 이상적 경영형태로 설정하고 있는 한 그는 결코 자본주의적 부농경영의 맹목적 옹호자일 수는 없었다. 문제는 생산의 협동조합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농업기술의 발전,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구비이다.⁷¹⁾ 이 점에는 그는 레닌과 전해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HЭП기 소련농가의 농기구 및 농기계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시기 농가의 평균경영 능력은 미국농가에 비해서는 물론⁷²⁾, 전쟁 전 자국의 상황에 비해서도 현저히 뒤처져 있었다. 1926~27년에 이르러서까지 농가 1호당 자본총액(건물, 농기계, 농기구, 수송수단, 역축)은 1913년의 83.3%에 불과하였다.⁷³⁾ 농기계의 구비를 위해서는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 당장 생산의 협동조합화, 곧 집단화를 실시한다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하였다. 현실 속에서 생산의 협동조합화(집단농장의 형성)가 지극히 완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생산물의 판매 및 가공, 생산수단의 조달 및 금융부문에서의 협동조합화는 기술적 전제조건이 없이도 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 중 협동조합에 가입한 농가의 비율이 1924년에는 7.8%였으나 1926년에는 26.3%로 증가해 있었다.

14-16면.

69) 위의 책, 200-201면.

70) Кондратьев, *Аграрный Вопрос*, 53-54.

71) Н.Д. Кондратьев, "К вопросу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условий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ССР и их значения" *Известия ЦК КПСС*, 1989, no. 7, 207면. 이 글은 15차 당대회에서 발표할 농촌에서의 환동분제에 관한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볼셰비키당중앙위원회 산하에 조직된 위원회의장(長)이었던 문로토프의 위촉을 받아 1927년 10월 초에 콘드라티예프가 작성한 것이다.

72) 미국농가의 호당 소유생산수단의 가격이(1차 대신 이전의 두분급화로 따지) 1785.5였던 데 반해 소련농가의 경우엔 그것은 719.2에 불과하였다. 위의 글, 197면.

73) 위의 글, 196면.

콘드라티예프가 보기에는 이는 농업발전과 관련하여 대단히 보부적인 현상이고 또한 앞으로 상당기간 농업정책이 이를 반대, 기공, 조달, 금융협동조합의 조직, 그 지원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⁷⁴⁾ 이는 또한 이들 협동조합에 편입돼 있는 개별경영의 경영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취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⁷⁵⁾ 어떤 일이 있어도 농민층의 자발적 의사에 반한 집단성명화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될 터였다. 토지국유화정책을 고수하면서 비자본주의적이며 강력한 농민경영(이는 사상에 대처할 수 있는 농민경영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콘드라티예프는 시장은 곧 자본주의의 단의 진유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을 육성하여 생산력향상을 꾀하자는 것, 이를 통해 이루어진 목적기반을 바탕으로 농업협동화 이룩고, 마침내 농업부문에 농기계를 제대로 공급해 주면 생산협동조합적 대경영으로 넘어가자는 것, 이것이 그의 기본구상이었다. 이렇게 볼 때 급속적인 목표에서 콘드라티예프가 지향하는 바는 당시 볼셰비키가 지향하던 농업사회화의 목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 특히 레닌이 사망 얼마 전에 발표한 <협동조합론>과는 상당한 친연성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시간이라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볼셰비키 당내노선투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스탈린파가 실제로 취하게 될 정책과 콘드라티예프의 구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당내 우파가 정치적으로 패배함과 함께 콘드라티예프의 활동 또한 중지당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

4. 콘드라티예프에 대한 스탈린파의 공격

1921년 <전시 및 전후의 세계경제와 그 경기전동>이 출판된 후 콘드라티예프가 일부 볼셰비키로부터 “자본주의의 옹호자”로 몰려 비판받기 되었음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 그의 이념적 노선과 관련한 비판은 1920년대를 거치는 동안 자주 행해졌다. 예컨대 스탈린파는 1927년 콘드라티예프와의 사이에

74) 위의 글, 208면.

75) 위의 글, 210면. 스탈린의 농업발전 5개년계획안이었던 <농업 및 농업발전단계계획의 기본>에서 계획집행자들은 개별경영이 생산기발함을 저해하는 단계가 되면 사회주의적 경영형태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집단제에서는 생산력 발달의 주제는 개별경영이라고 하는 결론을 관단을 함축하고 있다. Основы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단행본) 30면.

서 전개된 경제계획논쟁에서 그를 “인민주의의 아류”로 몰아붙이면서 그가 대표하고 있는 “유해한 경향”을 폭로하고 그 해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⁷⁶⁾ 나아가 이 학파는 나쁘게 끝장을 맺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⁷⁷⁾ 모든 상황을 전선(戰線)의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던(예컨대 농업전선, 역사전선, 경제학전선, 심지어 산술전선에 이르기까지) 스트루밀린으로서는 그 같은 표현은 오히려 약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비난들에도 불구하고 콘드라티예프는 НЭП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던 동안에는 학계 및 경제계획기관에서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쟁플란 내에서 그는 정책입안자로서 오래동안 상당한 권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쟁플란의 책임자였던 테오도로비치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26년, 쟁플란측이 작성한 농업발전 5개년계획안에 관한 토론에서 그가 마레츠키와 테오도로비치 사이의 논쟁(〈불새비키〉지에서 전개된)을 언급하면서 테오도로비치를 옹호하고 있었던 데서도 알 수 있다.⁷⁸⁾ 1924년 1월 콘드라티예프, 오가노프스키가 공동편찬한 〈소련농업발전전망〉에는 경제계획방법에 관해 테오도로비치가 작성한 테제에 바탕을 둔 한 짙막한 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콘드라티예프가 평소 제창하고 있던 방법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⁷⁹⁾ 또한 1928년에 쟁플란서 작성서의 일환으로 발표된 〈농업발전전망계획에 관한 자료집〉도 비록 콘드라티예프의 이름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그 기본내용이 콘드라티예프의 농업발전 5개년계획안과 다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사되고 있는 언어가 사실상 콘드라티예프의 그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었다.⁸⁰⁾ 뿐만 아니라 고스플란 내에도 그의 구상을 지지하는 인물들은 적지 않았다. 고스플란에서는 스트루밀린과 같이 농업부문에서 제원을 최대한 짜내 급속한 공업화

76) С.Г. Струмилин,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я СССР и эллипы народничества(II)” Плановое хозяйство, 1927, no. 8, 27년.

77) 위의 글, 31년.

78) Кондратьев, “Перспектив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у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1926 no. 3, 133년.

79) Н.Д. Кондратьев, Н.П. Огановский,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ССР, 169-172년.

80) Материалы по перспективному плану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овая деревня, 1928) 이 자료집은 편집총책임이 테오도로비치로 기록되어 있을 뿐 집필에 참여한 다른 인물들의 이름은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콘드라티예프의 영향이 이 시점에서조차 이 자료집작성에 깊이 미치고 있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를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이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적어도 이 기관의 농업부 소속 위원들은 공업화를 위해 농업부문을 희생시키는데 한결같이 반대하면서 콘드라티예프의 농업육성론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⁸¹⁾ 사실 이 НЭП시기에는 구체적 문제들에 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자 일반과 (구)인민주의자 일반 사이의 전선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흐려지고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들 내부에서의 대립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아 농업정책구상 및 국민경제건설구상에 관한 한 볼셰비키 당내 좌파와 우파 사이의 거리보다는 볼셰비키우파와 콘드라티예프 사이의 거리가 오히려 더 가까웠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콘드라티예프 자신도 볼셰비키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전서공산주의 시기와는 달리 НЭП기에는 볼셰비키지도자들(레닌, 부하린, 그리고 좌파로 결정적으로 선취하기 전의 카메네프 등)의 발언을 인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이다.⁸²⁾

그러나 НЭП경제가 부딪친 어려움을 강제력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스탈린파의 구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비(非)당원 전문가들이 볼셰비키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책결정방향에 관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가고 말았다. 샤희트 사건을 신호탄으로 1928년에는 이른바 “부르조아전문가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이 막을 울리게 되었다. 이 해 39세의 콘드라티예프는 경기연구소 소장직에서 진격적으로 해임당하면서 학자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정지당하게 되었다. 위로부터의 농업집단지화정책이 시작된 직후인 1930년에 소비에트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이른바 근로농민당(Трудовая крестьянская партия)의 괴수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당한 그는 1931년 비밀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1938년 10월 17일 바로 출감일자에 재차재판을 받고 그 날자로 총살형에 처해졌다. 또한 명의 저명한 농업육성론자였던 차야노프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학계, 정책입안부분에서 콘드라티예프가 활동을 정지당하게 됨과 함께 스탈린파는 콘드라티예프의 학문적, 이론적 영향을 최종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그에

81) 고스플란 농업부는 1924년의 이른바 콘드라티예프의 농업발전 5년계획안에서 개진된 원칙들을 대폭 지지하였다.

Кондратьев, “Перспектив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120-121면.

82) 에컨대 위의 글, 124, 133면. Кондратьев, “Основы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보고문) 192, 193면 등.

대한 맹렬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 결과가 집약된 것이 <콘드라티에프도당(徒黨)>(1930)과 <콘드라티에프도당에 맞서>(1931)라는 두 권의 논문집이었다. 밀류틴을 비롯하여 술코프스키, 우간스키, 물린, 라프체프 등등 스탈린과 농업경제학자들이 참여한 이들 책에서 콘드라티에프를 비롯한 다양한 경향의 비스탈린과 농업경제이론가, 계획론자들은 소비에트체제의 전복과 부르조아 지배체제의 부활을 꾀하는 반혁명세력으로 싸잡아 매도당하고 있다. 콘드라티에프와 더불어 이 부류에 포함되어 공격당하게 된 것은 차야노프학파의 대표적 학자들인 차야노프, 마카로프, 멘세비키 경제학자이자 경제계획입안자였던 그로만, 수하노프, 도야렝코 등이었다. 콘드라티에프공격의 선봉에 선 밀류틴의 준엄한 논고에 따르면 사회혁명당, 멘세비키, 카백츠잔당인 이들 반혁명세력은 1925년부터 콘드라티에프당을 형성하여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공산당내에까지 마수불 뻗쳐 테오도로비치 같은 볼셰비키까지 영향권 아래 넣어버렸다는 것이다.⁸³⁾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스탈린과 농업경제학자들이 지난날의 동료이기도 했던 비스탈린과 학자들을 공격하면서 이들이 내세웠던 서로 정반대되는 주장들을 바로 그들이 한 통속임을 입증하는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멘세비키계열의 경제학자였던 그로만은 공업화논쟁에서 농산물을 수출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자본으로 공업부분의 생산수단을 수입할 것을 제안한 콘드라티에프와는 정반대로 농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대신 공산품과 기계의 수입은 제한할 것을 골자로 하는 급속한 국내공업육성론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류틴은 그로만이 소련국민경제의 농업화를 꾀했으며 그런 점에서 콘드라티에프와 한 통속이라 주장하고 있다.⁸⁴⁾ 물론 그로만이나 콘드라티에프 모두 소련의 경제발전계획을 세계경제와의 관련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바로 그같은 사실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스탈린과 농업경제학자들은 소련의 사회주의건설은 일체의 대외교역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한 셈이 되었다.

나아가 스탈린과 농업경제학자들은 콘드라티에프일파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범죄적 오류를 범했다고 탄핵하였다.

① 콘드라티에프일파는 자본주의의 몰락의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견고

83) Кондратьевщина, 10면.

84) 같은 곳.

합, 기술적 성과를 역설하면서 계획수립에서 자본주의경기의 장기파동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소련경제를 결국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한 변형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였다.⁸⁵⁾ 자본주의의 몰락이 당장 눈앞에 닥쳤다는 확고하고도 투철한 신념을 표명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부활을 꾀했다는 점에서 이들 스탈린파 학자들이 보기에는 트로츠키와 콘드라티예프가 모두 한 통속이었다.⁸⁶⁾

② 그러나 물론 스탈린파가 보기에도 콘드라티예프는 트로츠키보다는 볼셰비키 우파에 훨씬 가까웠다.⁸⁷⁾ 스탈린파 학자들은 콘드라티예프 일당이 넓고도 다기(多岐)한 조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도적 경제계획입안기관, 행정기관에도 광범하게 침투하였으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들의 영향력행사는 바로 볼셰비키 우파의 허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였다.⁸⁸⁾ 스탈린파가 보기에는 이들의 기본적 오류는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무시한 데 있었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콘드라티예프는 국민경제의 생산력향상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가장 진보적인 세력의 이해관계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세움으로써 쿨라키움호론에 빠지는 한편, 사회주의적 공업화에는 반대하면서도 공업화의 필요성 자체는 역설하였으므로⁸⁹⁾ 결국 공업과 쿨라키의 동맹을 지향한 셈이었다. 콘드라티예프일파는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농업우대정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스탈린의 말대로 산업발전이야말로 농업생산제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이들과 반(反)콘드라티예프파 학자들은 주장하였다.⁹⁰⁾ 그들에 따르면 농업과 공업의 균형적 발전론이라는 것은 부하린이나 보그다노프의 “평형론”과 유사하거나와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⁹¹⁾

③ 스탈린파 농업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콘드라티예프 일파는 부농형산업화, 시장기능과 농업발달과정의 관성에 바탕을 둔 농업발전을 꾀함으로써 농업의 집단화를 가로막고자 하였다. 이 일파가 내세웠던 농업경영의 최적규모론(합리적 경영, 생산력발전, 상품성증대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경영규모가 보장되어야

85) 위의 책, 33, 42-43면 등.

86) Против Кондратьевщины, 9면.

87) 위의 책, 61-71면, 80-98면 등.

88) Кондратьевщина, 82-83면.

89) 위의 책, 49면.

90) 위의 책, 68면.

91) Против Кондратьевщины, 89-98면.

민다는 주장)도 결국 부농형 발전을 위한 궤변에 불과하였다.⁹²⁾ 뿐만 아니라 스달린파가 보기에는 콘드라티예프일파는 농업우선론을 내세우면서도 농업성장률 지표를 충분히 높이 설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 예컨대, 니콜리히의 주장에 따르면 소련에서는 연간 20%의 농업총생산량 증가가 가능한데 콘드라티예프파일 오가노프스키나 비슈네포스키는 연평균성장률을 4.6%로 설정하는 데 그쳤으며⁹³⁾ 또한 트랙터를 비롯한 농업기계의 공급증가율 또한 가능한 증가율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고 있었다.⁹⁴⁾ 스달린파에게는 계획인정생산시점까지의 발전동향을 근거로 하여 콘드라티예프의 동료들이 작성한 계획안은 곧 자연발생성에의 굴복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4) 콘드라티예프 및 그의 일당으로 몰리게 된 농업경제학자들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아가 스달린파는 거시 기초적인 사실과 관련하여서도 그들에게 서겨진 내용의 힘을 잃어적우곤 하였다. 예컨대 콘드라티예프파는 토지국유화에 반대하고 토지사용권을 주장했다거나⁹⁵⁾ 콘드라티예프는 협동조합을 전적으로 거부했다거나 하는 것이었다.⁹⁶⁾ 콘드라티예프는 토지사회론자였으며 이것의 분세비키적 적용인 토지국유화조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인물로서(물론 2월혁명기에는 국가 또한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분세비키의 토지국유화는 국가가 강압으로부터 지내를 수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소유제도였으므로 기본정신에 있어서 콘드라티예프의 토지사회화와 다를 바 없었다) 토지제도는 토지국유화원칙에 계속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1927년의 토지법투쟁에서도 분명히 명시했었다.⁹⁷⁾ 또한 그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적 경로의 농업사회화를 지향하고 있었음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 있다. 근로농민당의 형성, 반소비에트적, 반혁명적 계몽이라는 회복 자체가 날조된 것인 데에 이같은 왜곡은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콘드라티예프 및 그의 동지들의 체포, 재판과 더불어 실정에 올랐던 반(反)콘드라티예프 캠페인은 한편으로는 승리한 정치세력 쪽에 끌기듯 걸쭉한 일군

92) Кондратьевщина, 58면.

93) 위의 책, 74면.

94) 위의 책, 75면.

95) 위의 책, 55면, Против Кондратьевщины, 72면.

96) Кондратьевщина, 53면.

97) Основные начала землепользования и землеустройства, 181면.

의 학자들의 의식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주자 이야기의듯이 스탈린파에 의한 농업집단화과정은 스탈린파에 의한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스탈린의 혁명은 이를 충실히 수행할 새로운 형의 활동가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혁명이전시대에 교육을 받고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시켜 온 “부패한 부르조아” 전문지식인들은 이에 적합한 존재가 될 수 없었다. <콘드라티예프도당>의 필자 가운데 하나인 베르즈보이스는 타오도로비치 등 볼셰비키 우파에 의해 옹호받아 온 비공산주의자 전문가들은 이제 필요없으며 젊은 공산당원들을 양성하고 승진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⁹⁸⁾ 이같은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잘 알려주고 있다. НЭП라는 경제의 기본 자체가 폐기되기로 된 이 마당에서는 학자들 사이의 논의, 혹은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논의도 단순히 혁명주의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기관, 전문연구소 등의 인력구성을 둘러싼 격렬한 세력다툼이기도 하였다. 정치가가 아닌 학자였던 콘드라티예프가 그의 학문적 논의 때문에 단순히 영향력있는 직위를 박탈당하게 된 데 그치지 않고 체포, 투옥되었다가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세계관을 둘러싼 싸움과도 관련이 없지 않았다. 어떤 논자는 콘드라티예프의 제거는 생물학계에서 브이생코가 진형을 부리게 된 것으로 보상되듯이 그 후 20년간 학문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문학파”가 대반압을 받게되는 과정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⁹⁹⁾ 그것은 소련역사에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선이었음에 틀림없다.

5. 콘드라티예프에 대한 새로운 조명

스탈린 정권에 의해 콘드라티예프에게 가해졌던 여러 표적지들은 소련경제학계, 사회계에서 그에 대한 평가에 오랫동안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물론 스탈린시대 이후에는 인민의 석, 발혁명단체의 교수라는 표현들이 그에 대해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1920년대의 경제사상사, 농업경제이론사들 다루는 전문가자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 그는 여전히 자본주의의 부활을 꾀하던 부르조아적 노선의 대표자로 소개되어 왔다. 예전대 이 분야의 대

98) Кондратьевичева, 84-85면.

99) Л. Пиваева, “Тяжелая колесница истории проехала по нашему поколению...”, 194면.

표적 학자인 피구로프스카야의 저서¹⁰⁰나 <경제학백과사전>의 콘드라티예프 항목은 이같은 평가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나마 그렇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의 저작들은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다시피 하아왔다. 그러나 케레스트로이카 시대에 시작된 소련역사재검토, 재해석작업과정에서 스탈린정권에 의해 박해받고 치형당했던 수많은 정치가, 학자들의 활동과 사상이 긍정적으로 재조명되고 재평가받게 되다 함께 소련 내에서도 그에 대한 인식이 세로워지고 있다. 1930년의 재판에서 콘드라티예프에게 덮어씌워졌던 죄목은 재조사결과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1987년 7월에는 다른 많은 경제학자들과 함께 그에 대한 공식적 복권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그의 저작, 논문들이 새로이 간행되고 미발간원고들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탈린판 사회주의 건설경로가 사회주의체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구(舊)동구권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舊)동독출신의 사회주의이론가인 울리히 헤트케가 <스탈린인가 콘드라티예프인가>라는 책에서 콘드라티예프를 스탈린의 대안이 될 수 있었을 사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경향을 잘 반영한다. 즉 콘드라티예프가 구상한 경제발전경로는 소련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자본주의적 노선을 제확립하는 길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경로의 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1920년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콘드라티예프가 자신의 사회를 향해 하고자 했던 말은 대체로 두 가지 정도였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사회주의의 건설, 세계혁명은 자본주의의 경기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 장기적 전망에 대한 인식없는 모험주의적 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러시아혁명은 반봉건, 반제국주의혁명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제정책은 러시아 자본주의의 후발성으로 인한 생산력발달지체를 만회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호소였다. 물론 콘드라티예프의 대안이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꼭 성공적으로 작동했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콘드라티예프가 구상하였던 농업육성을 바탕으로 한 공업화라는 안 또한 설사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는 심각한 현실적 장애(이론적 장애가 아니라)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¹⁰¹ 스탈린의

100) Н.К. Фигуровская, Аграрные проблемы в совет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20-х годов. (Москва 1978). 예를 들어 그녀는 이 책에서 <콘드라티예프 도량>에 실린 악성비난들을 아무런 비판적 언급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250면.

101) U. Hedtke, *Stalin oder Kondratieff*, 특히 50-103면.

농업집단지화정책 또한 기본적으로는 농산물수출을 통해 공업화의 재원으로 삼고자 하는 복안 위에서 실시된 것이었다. 콘드라티예프는 30년대까지도 개별농민 경영 및 자유시장기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수출을 생각한 반면, 스탈린의 정책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단농장으로부터 농산물을 거두어들여 그 상당부분을 수출함을 방법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 차이였다. 그런데 농민층의 엄청난 인적, 물질 희생을 무릅쓰고 강행되었던 스탈린의 농업집단지화정책이 공업화의 재원확보라는 면에서 결코 그에 상응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는 세계시장에서의 농산물가격폭락이라는 요인 또한 대단히 크게 작용했다. 30년대초 소련의 농산물수출은 양적으로는 50배규모로 늘어났으나 판매대금의 증가는 10배에 불과하였다.¹⁰²⁾ 세계시장에서의 가격수준이 소련정책담당자들의 영향권 밖에 있는 것임은 자명한 터였고, 그렇다면 경영의 주체가 개별농민이던 집단농장이던 이로부터 거두어들여진 농산물의 단위량에 대한 수출 가격이 차이가 났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상품성 높은 개별경영이 대공황기에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세계시장을 겨냥해 농산물을 재배하던 농민들은 오히려 큰 타격을 입고 몰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이 경우 사회주의경제의 순탄한 건설은 아무래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한편 콘드라티예프의 구상이 정책에 옮겨졌다면 장기적으로 보아 계급간의 분화문제가 훨씬 복잡하게 제기되었을 것임은 분명 추정할 수 있다. 농민층 사이에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프롤레타리아층과의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갈등의 조정은 사회주의이념의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재해석(그 당시 이미)을 포함하여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요하는 것이었을 터인데 그 해결책이 미진했을 경우 또 다른 형태의 강압적 정치체제가 출현하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콘드라티예프가 제안했던 대도 과거의 발전경향에 대한 동태적 분석과 미래의 발전동향에 대한 예견에 입각하여 자발성과 지도의 원칙을 조화시킨 경제계획이 실현되었더라면 농민층에 대한 정권층의 전쟁으로 인해 초래된 농업생산력의 감소는 적어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농민 경영의 자급자족의 기초는 수출시장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손상을 당하지 않았을 타이프로 생산의 기반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시장의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 다시 비교적 높은 판매고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현실

102) 위의 책, 60면.

의 동향을 무시한 일방적 계획작성, 정책집행의 관행이 낳게 된 고질적 관료주의의 병폐 또한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이같은 공리들은 모두 “만약” 사학의 범주에 드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드라티예프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그가 당시 적지 않은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며, 농업경영의 협동조합화를 꾀하던 그의 노선은 세계에 대해, 미래에 대해 열려있는 노선이었던 만큼 적어도 정책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만회하고 시정할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볼셰비키우파—콘드라티예프파의 제거는 이같은 가능성이 소련역사에서 오랫동안 사라져 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The Soviet Agrarian Economy under NEP and Kondrat'ev's
Pro-peasant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by Jeong-sook Hahn

Among the economists rehabilitated in July, 1987 was Nicholas Kondrat'ev, known in the West for his theory of the long wave cycle of capitalism but branded in his country since his trial and execution in 1930 as an enemy of the people who had tried to revive capitalism. He is not only cleared of these charges but is becoming a new focus of attention the man whos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strengthening of the peasant economy offered a viable alternative to Stalinism.

Kondrat'ev's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differed from the Stalinist main

line on two main points. He argued that socialism could not be built and world revolution could not succeed without paying careful attention to the long wave, as well as the short-range, cycles of capitalism and that Russia as a country which successfully accomplished anti-feudal and anti-imperialist revolution without a highly developed capitalism had to strengthen its agricultural economy as a prerequisite to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Whether Kondrat'ev's alternative would have worked better than Stalin's is a question which cannot be answered simply. Kondrat'ev's insistence on reliance on market mechanism and production incentive to the peasants may not have resulted in any noticeable increase in the income from agricultural exports since the price drop had little to do without policy-making in the Soviet Union. It might have exacerbated the problem of social differentiation in the villages and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city and countryside. On the other hand, the worst consequences of the Stalinist policy of forced collectivization, destruction of agriculture and bureaucratic bulldozing of the peasant life could have been avoided. The purging of the Bolshevik right and Kondrat'ev school meant the end to open-minded search for better road to socialism.